

법철학과 유가사상 기말 시험 - 2021.6.19

- 시험 시간은 24시간입니다. 답안은 6월20일 정오까지 <https://lawlec.korea.ac.kr/essay> 사이트에서 “법철학과 유가사상” 과제물 “3”으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자료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자유롭게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 답안 내용 자체에는 자신의 이름이나 전공 과목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1]

논어 1.7 (子夏曰：「賢賢易色，事父母能竭其力，事君能致其身，與朋友交言而有信。雖日未學，吾必謂之學矣。」)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번역이 있다.

번역1: 자하가 말했다.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어진 이를 어질게 여겨라. 부모를 섬기는 데는 온 힘을 다할 것이며, 임금을 섬기는 데는 온 몸을 다 바칠 것이다. 벗과 사귀는 데는 말을 하면 지키도록 하라. (그렇다면) 비록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 사람을 배웠다고 할 것이다.”

번역2: 자하가 이렇게 말했다. “학식과 재능에 현혹되지 않고, 감각적 유혹을 물리치고, 온 힘을 다해서 부모를 모시고, 온 몸을 바쳐서 임금을 섬기며, 친구간에 교제할 때 그 언사가 믿음직스럽다면, 비록 남들은 그 자를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 자를 배운 사람이라고 하겠다.”

많이 배운 사람을 흠모하고 숭배하는 것이 배운 이의 자세인가?

[2] 공손함(恭)이 거론된 다음 귀절들을 비교하여 공손함과 예법과의 관계를 설명하라.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듣기 좋은 말이나 하고, 좋은 낫으로 대하고, 아주 공손하게 행동하는 것을 좌구명(左丘明)은 부끄러워 했어. 나도 그래. 원한을 감추고 친구처럼 좋게 대하는 짓을 좌구명은 부끄러워 했어. 나도 그래.” (논어 5.25)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공손하기만 하고 예법을 따르지 않으면(恭而無禮) 고되기만 하고, 신중하기만 하고 예법을 따르지 않으면 겁쟁이가 되고, 용감하기만 하고 예법을 따르지 않으면 반란이나 일으키게 되고, 정직하기만 하고 예법을 따르지 않으면 움짱달싹을 못하게 되지.” (논어 8.2)

유자(有子)가 이렇게 말했다. “약속(信)이 의로움에 가까우면, 약속한 말 그대로 실행할 수 있다. 공손함(恭)이 예법에 가까우면 치욕스러움을 멀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도 친한 사이가 멀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자는 또한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논어 1.13)

공손히 존경하는 마음가짐이 곧 예법이다(恭敬之心 禮也) (맹자, 告子上 6)